

# 비방극 12월 이야기



백지연



정구인



강경규



정영제



# 목차

덤프사이트

푸가로

싱가폴 워크캠프

홈스테이

개인에세이



그들에게 무슨일이...??

# 12월 활동 달력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덤프사이트	푸가로	자유시간	덤프사이트 보고서 회의	푸가로 보고서 회의	평가시난 YMCA 88주년
7	8	9	10	11	12	13
싱가폴 워크캠프 환영행사	덤프사이트 시장 투어 with 싱 가포리안	워크캠프 in 안다				자유시간
14	15	16	17	18	19	20
자유시간	덤프사이트 가족사 진	푸가로	덤프사이트 파티 준비	덤프사이트 가족사 진	푸가로 워크샵 데이케어센터 크리스마스파티	덤사 파티 준비 싱가폴 워크캠프 Farewell 파티
21	22	23	24	25	26	27
덤프사이트 크리스마스 파티	홈스테이					
28	29	30	31			






덤프사이트



# 1. 아띠클라세

A group of approximately 15 children and 4 adults are posing for a group photo outdoors. They are all wearing colorful, hand-made paper crowns. The children are of various ages, from toddlers to young children. The adults are smiling and some have their arms around the children. The background shows a simple outdoor setting with some structures and trees.

이번 달 아띠클라세의 주요 수업은 미술 교육이었다. 마지막 달 아띠클라세인 만큼 아이들에게 좀 더 의미 있는 수업을 하고 싶었고 그 결과 종이 접기와 왕관 만들기 수업을 준비했다. 4명의 라온아띠가 각자 아이들의 나이에 맞게 수준별로 종이 접기를 준비해갔다. 마지막 아띠클라세에는 왕관 만들기 수업을 위해 두꺼운 종이를 왕관을 만들어갔다.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왕관을 꾸밀 수 있도록 한 후 머리 크기에 맞게 고정을 시켜 왕관을 완성시켜주었다. 지금까지 한 아띠클라세 중 가장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였고 학부모님들도 오셔서 아이들과 함께 왕관을 만들며 성공적으로 아띠클라세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



## 2. 가족사진 Project

11월의 활동이 끝나갈 즈음 한 아버지가 가족사진을 찍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선 많은 가족들이 가장 여유로운 일요일에 방문하여 전체 마을을 돌며 가족사진을 찍었고 그 후에도 활동 중간 중간 계속해서 가족사진을 찍었다.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 거의 모든 가구의 사진을 찍을 수 있었고 크리스마스 파티 당일 액자에 담아 모든 가족들에게 전달하였다.



### 3. 크리스마스 파티

12월 21일 덤프사이트 마지막 활동 날 우리는 덤프사이트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었다. 크리스마스 선물꾸러미와 간식 그리고 가족사진을 준비하였다. 많은 YMCA의 Volunteer들이 선물준비와 짐을 나르는 것, 그리고 크리스마스 파티 당일 게임진행을 도와 주었다.

오후 2시, 덤프사이트의 블루하우스에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우리는 아이들을 위한 게임, 부모님을 위한 게임, 부모님과 아이들을 위한 게임 등 다양한 게임을 덤프사이트 주민들과 함께 즐겼다. 후에 피딩 프로그램으로 아로스칼도(닭죽)를 먹은 후 액자와 선물을 나누어주는 시간을 가지며 우리의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 아피들의 조잘조잘



지연 : 덤프사이트 활동을 마무리한 소감이 어때?

너무 아쉬웠어..

구인 : 나는 마지막에 나올 때 빈할아버지가 내 볼에 뽀뽀를 해주시며 메리크리스마스라고 말해주시는데 순간 울컥하더라구. 석양이 지면서 옆에서 장작이 타오르는데, 뭔가 크리스마스 영화 속에 내가 있는 것 같았어.

영제 : 덤프사이트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경구 : 애들이 제일 어려워. 오라고 해도 안오고

경구 : 나는 마지막에 아이들과 하나하나 우리 마지막이다 이런 말도 따갈로그로 나누고 싶었는데 파티만 하고 작별인사를 제대로 못한 것이 아쉬웠어. 그치만 몇 명 아이들은 우리가 마지막인걸 알았는지 훌쩍훌쩍거리는 걸 보니 마음이 찡했어. 그러면서 내가 가려고 하니 내 손을 잡으면서 눈물을 흘리는거야. 그런걸 보면서 짠했어.

구인 : 나는 간식 줄 때가 참 힘들더라구... 아이들 마음은 이해하지만 거짓말을 하면서 더 달라고 할 때 순간 화도 나고 속상하고 그렇지만 또 이해도 되고...푹푹

지연 : 난 아피클라세를 진행할 때? 아니면 그들은 "inspire" 한다는 것. 너무 어려워ㅠ-ㅠ~

구인 : 아마 우리가 떠난다는 걸 알지 않았을까..?

영제 : 나는 '이게 끝난건가..?' '다시 오는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

지연 : 나는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너무 정신없이 크리스마스 파티를 진행하고 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집에 다 돌아간거야. 그래서 제대로 작별인사를 하지 못한 것이







지연 : 이번 12월 활동 중 가장 기억 남는 일이 뭐였어?

경구 : 나는 앙관만드기가 제일 좋았어. 지금까지 아띠클라세를 하면서 가장 많은 아이들이 참여했고 어른들도 굉장히 좋아하셔서 가장 인상 깊었어.

구인 : 나도 그랬어. ^^ 히히. 특히 처음으로 부모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기분이 좋았어. 아이들 앙관을 고정시켜 달라고 수줍게 부탁하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아~

(이 와중에 구인이는 간식을 찾았습니다.)

지연 : 난 우리가 크리스마스 파티 때 우리 라온아띠 네명이 찍은 사진을 준비해갔었잖아. 난 사실 처음에 우리만 담겨있는 사진을 드리는 것이 조금 부끄러웠는데 다들 우리 사진 한장 더 줄 수 없냐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거야.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게 너무 기분 좋았어.

영제 : 난 장난감 나눠줄 때가 더 기억에 남는데.

지연 : 왜?

영제 : 누군가가 버린 장난감을 누군가는 그렇게 갖고 싶어한다는 것이. 기억에 남았어.

경구 : 맞아 누구는 장난감을 준걸 누구는 안준다고 아이들이 찡찡대는 거야. 먼저오면 장땡.

영제 : 그치만 그건 기부받은거라 어쩔 수 없으니까.

구인 : 난 솔직히 ymca 친구들과 헌옷과 장난감을 준비해갈 때 이렇게 낡은 것도 쥐도 괜찮을까? 걱정했었는데 너무나 좋아하셔서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헌 것을 받았을 때 약간은 실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오산이었어. 순수한 그 사람들의 미소가 나에게 많은 생각을 안겨주었지.

(그 와중에 구인이는 다른 간식을 찾습니다.)





경구 : 아~난 시몬 보고싶다! 시몬 항상 나한테 안기고 그랬는데  
확실히 안기는 아이들이 정이 가. 그리고 킴벌리도. 내가 걷  
고 있으면 쪼르르 와서 손을 잡고 그랬어.

지연 : 나는 누구 하나 뽐을 수가 없어. 요즘에는 시간이 날 때 덤  
프사이트 가족사진을 보게 되더라구. 사진을 보다 보니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구나 느낄 수 있었어.

구인 : 그런데 부부 게임할 때 보니까 덤프사이트 가족들의 부부애  
가 좋더라~ 보기 좋았어><

경구 : 그러니까 금슬이 좋으시지.

...이렇게 대화는 산으로 흘러갔습니다.^\_^ 덤프사이트 인터뷰 끝!







푸가로



# 그린하우스 프로젝트 & 워크숍

이번 달에 우리가 실시한 활동은 지난 달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두 가지 활동에 주력했다. Composting soil 만들기와 Planting 이다. 전에 만들어 놓았던 Composting soil에 음식물쓰레기와 마른 소똥을 더 추가하였다. 어떤 Composting soil 자루에는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싹이 트이는 기적이 일어났다.

지난달엔 많은 식물들이 말라서 죽기 직전이었다. 햇빛을 가리는 것만으로 많은 것들이 다시 살아났다. 땅을 파서 새로 직접 씨를 뿌린 곳에는 싹이 트었다.

그린하우스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기 위해 우리는 Workshop을 준비했다. Workshop을 통해 그린하우스에 대해 더 알리고 직접

Composting soil을 만드는 시연을 계획했다.

Workshop을 알리기위해 우리는 House to house를 실시하였다. 일정을 핑계로 가지 못했던 푸가로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인사를 드리고 Workshop 참여를 부탁드렸다. 20가구 정도를 방문하였는데 Workshop에는 결국 한 가구만 참여하는 불상사를 겪었다.

우리의 그린하우스 프로젝트는 '우리가 하고 싶던 표지판 만들기'와 '마을사람들에게 소개하기'를 하지 못한 채 애매하게 끝나버렸다. 그리고 확실한 인수인계 없이 코디네이터들이 가끔 가보겠다는 약속만 받고 홈스테이를 들어와 버려서 지금 식물들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는 상태이다.







# 푸가로 크리스마스 파티

데이케어센터 활동도 12기의 주요활동 중 하나였지만 그린하우스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데이케어센터 활동을 하지 못했다. 결국 푸가로 활동을 마무리하던 마지막 날 데이케어센터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여한 것이 우리의 이번 달 처음이자 마지막 데이케어센터 활동이었다.

크리스마스 파티를 위해 우리는 간단한 게임과

상품을 준비하였다. 준비한 게임을 코디네이터 Lyn과 함께 1시간 정도 진행을 했다. 크리스마스 파티인 만큼 아이들과 학부모님들 모두 게임을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수고한 우리를 위해 데이케어센터에서 점심을 준비해주셔서 식사 후 마무리 인사를 하고 데이케어센터 활동을 마무리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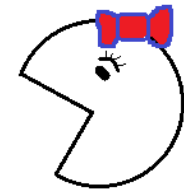


푸가론 크리스마스 파티





# 아띠들의 조잘조잘



영제 : 근데 갑자기 12월에는 푸가로에 대한 열정이 확 꺾이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 코디들도 많이 가지 않았고. 우리도 약간 그랬지

경구 : 맨날 똑같은 거 해서 질리는 감이 있었어.

영제 : 그렇게 보면 우리도 반성해야 하긴 한다. 맨날 똑같은 거 한다고 질려하고. *Composting soil*도 더 많이 만들어 냐어야 했는데.

지연 :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데 똥도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아무리 *Composting soil*을 많이 만들어도. 그때 봤잖아. 우리가 하우스 투 하우스까지 하고 심지어 다들 우리 워크샵에 참여한다고 하셨는데도 한가구 참여한거. 그런거 보면 더 중요한 건 *Composting soil*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었을까?

경구 : 그래서 난 푸가로에서 기억에 남는 사람을 꼽으라면 잘 기억이 나지 않아... 얼굴은 떠오르는데 이름도 잘 모를 정도로 관계를 잘 못 맺었어. 흐규흐규

구인 : 우리가 좀. Y나 코디등한테 의존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 우리가 *Composting soil* 을 만들면서 우리 그린하우스를 관리할 사람을 구하고 좀 더 알렸어야 했는데 코디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Y가 다 해주겠지 하다보니 그랬던 거 같아. 지금 다 죽어있는 우리 아기들을 생각하니까 엄청 억울하다! 결과물이 부족해서 아쉬워. 사람들이 저번처럼 우리 그린하우스에 쓰레기 버리면 어떻게!!ㅠ.ㅠ





경구 : 아 그거 있어! 덤프사이트랑 푸가로 활동 다 마치고 우리가  
홈스테이를 하고 있잖아. 여기 있다 보면 활동지에서 보았던  
아이들과 닮은 아이들이 눈에 띄는거야.

구인 : 나도 누우면 로즈비아랑 엔젤 얼굴이 막 떠오른다!

경구 : 아냐아냐. 이건 그냥 한 소리야 이런 건 안 적어도 되. 적지  
마 제발.

지연 : 난 13기가 푸가로에서 어떤 활동을 할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난 정말 푸가로 사람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 그치?

구인 : 난 한편으로 미안하기도 해. 어쩔 수 없이 그린하우스를 해야  
하잖아...

영제 : 그렇긴 한데 하루는 그린하우스, 하루는 다른 활동을 할 수 있  
어.

경구 : 우영 간사님이 텃밭가꾸기 같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고 했  
잖아. 13기가 홍보 잘해서 사람들 집 뒤에 텃밭 가꾸기 하면  
좋은 것 같아.

지연 : 맞아. 그리고 우리가 많이 해타서 그린하우스를 관리하는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들진 않을꺼야. 아차! 13기가 왔을 때는  
여름방학이지? 무엇을 할려나...

구인 : 나는 왜 13기가 그린하우스를 처음부터 시작할거란 생각이든  
지. 홍보가 하나도 안돼있잖아... 또 다시 심고 알리면서 그린  
하우스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아.

경구 : 우리 너무 늦게 시작했어. 너무 늦게 시작했어.

구인 : 아무리 생각해도 아쉽네. 결과물이 너무 아쉬워.

지연 : 그럼 데이케어 센터는? 우리 마지막에 크리스마스 파티 했  
잖아. 난 우리가 항상 준비를 2%로 부족하게 해가지 않았나.  
그날도 급하게 게임을 준비해가서 우리 코디가 많이 도와주고  
덤프사이트 때도 게임진행은 4친구들이 전부 도와줬잖아. 4친  
구들이 없었으면 어땠을 지 어휴.





구인 : 우리팀 성향인 것 같아...

경구 : 난 2프로가 아니라 20프로 인거같아. 우리 준비 하긴 해!  
하는데 발등에 불 떨어지면... 허허

구인 : 다 비슷해서 다행이지..허허

경구 : 근데 애네가 급하게 가르쳐줬으니까.

영제 : 난 데이케어 센터 그렇게 호응이 좋은 줄 몰랐어. 되게 지루  
하고 길쭉 알았는데 시간이 금방갔어. 난 되려 우리가 데이  
케어 센터에서 우리가 주력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가니까 주  
력이 됐어.

구인 : 딱 봐도 선생님이 하기 싫어하셨어..ㅋㅋㅋㅋ음식 준비

하느라 바쁘셔서...

영제 : 덤프사이트야 원래 계획한건 우리가 아니고 ymca니까 우  
리가 주력이 아니어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지연 : 데이케어센터도 생각해보면 우리 데이케어 센터에 활동한  
게 아마 5번도 안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이들도 어머니들도  
우리를 좋아해주신다는게 새삼 신기하기도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네. 마지막에 우리를 항상 반갑게 맞아주시던 쏘잉  
클럽의 나나이가 우시던 것도 문득 기억에 나.

구인 : 맞아.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ㅠㅠ

경구 : 난 마지막인데 늘 오던 애들 못 봐서 아쉬웠어.

지연 : 음 나두. 근데 배고프지 않아? 쉬었다 하자!





# 싱가폴 워크캠프





# 싱가폴 워크캠프



12. 7~12. 21일까지 약 2주간 싱가포르 Work camp가 Anda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캠프에는 싱가포르 YMCA, 팡가시안 YMCA, 태국 라온아띠 코디네이터 Ton과 뽕긋팀이 참여하였다. 그 중 라온아띠는 환영행사를 기점으로 6일간 참여하였으며, 1월에 있을 안양 Work camp 진행에 도움을 얻기 위해 함께 참여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다. 본격적인 캠프 시작 전, 덤프 사이트를 하루 방문하여 치약, 칫솔, 신발 등 필요한 생필품을 나누어 주었으며 Capital Auditorium, Souvenir shop 등을 방문 하며 City Tour도 함께 즐겼다.





# 싱가폴 워크캠프



Work camp는 크게 초·고등학생 교육과 건축으로 나뉜다. 먼저 초·고등학생 교육의 경우,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보조와 몸놀이를 함께 했다. 건축의 경우, 물탱크를 짓기 위해 시멘트 및 모래 운송, 철근 절단 등의 활동을 했다. 싱가포르, 필리핀, 한국, 태국 4개의 국가가 3개 조로 나뉘어 교대로 교육과 건축 활동을 맡았다. 일정 마지막 날에는 나무심기를 도왔다.





BRGY. STA CRUZ CHRISTMAS PARTY 2014  
MERRY CHRISTMAS



홈스테이



# 우리 가족을 소개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 집 옆에는 살인미소 오빠와 예쁜 시언니가 살고 5분 거리에 멧쟁이 이모가 산다. 또한 언니의 남편, 즉 형부는 현재 한국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는 한 가족이다.

\*()내가 부르는 호칭

## \*아빠(땃따이) : Cesar, 61

드라마~드라마, 가끔 콧노래를 흥얼거리시면 난 빵터진다.ㅋㅋㅋ 항상 굿~모닝!하시면서 날 반겨주신다. 설거지를 할 때면 "oh~? Are you washing the dishes?" 대견하게 웃으시면서 지나가신다. 아빠의 패션은 한결 같이 팬티차림이다..... 흥

## \*엄마(나나이) : Adelina, 55

우리 엄마, 너무 따뜻하다! 하나부터 열까지 친절하게 잘 챙겨주시는 세심한 여자. 어디 가시거나 뭐 하시면 꼭 나한테 와서 말씀을 해주신다.ㅎㅎ 부업으로 옷을 수선하시는 일을 하신다.

## \*언니(아떼) : Cerlyn, 35

쿨내를 풀풀 풍기는 언니. 그렇지만 누구보다 사려 깊고 따뜻한 사람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잘 먹는다.하하하. 게다가 요리도 잘해서 난 배고플 틈이 없다. 한 아이의 엄마로서 부인으로서 딸로서 누나로서 집에서 알게 모르게 가족을 따뜻하게 돌보는 우리 언니

## \*조카(cj) : Cedrin james, 9

너무나 사랑스러운 내 동생. 잘생겼고 귀엽고 착하고 사려 깊고 날 잘 따른다. "아떼(누나)" 하면서 늘 나를 부르는데, 그게 얼마나 사랑스럽게 들리는지 모른다. 누나가 돈 많이 벌어서 크리스마스 때마다 선물 보내줄게♡

## \*막내 딸 : Mutya, 21

예쁘다, 착하다, 귀엽다, 사랑스럽다, 맘찍하다...ㅋ 막내 딸, 조카 cj의 best friend.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지만 잠시 휴학 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늘 호기심이 많고 종종 cj와 춤을 즐긴다.

# ♥♥ Mutya가 전하는 HAPPY NEW YEAR.

다들, HAPPY NEW YEAR. ^0^ 내가 이곳, 필리핀 산타크루즈에서 보낸 잊지 못할 새해를 함께 공유해볼까 한다. 우리나라는 설날에 다 함께 새해를 기념하지만 이곳 필리핀은 1월 1일에 NEW YEAR PARTY를 한다. 크리스마스가 끝났다는 게 실감나지도 않는데, 바로 뒤이어 새해라니! 크리스마스부터 새해까지는 이곳 필리핀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아이들은 크리스마스&새해 방학이라고 해서 2주간 휴식기를 가지며 어른들도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의 고향을 찾아 떠난다.

12월 31일, 2시부터 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다. 엄마와 언니와 함께 스파게티, 빌로빌로(우리나라 떡국과 비슷함), 춘권, 마카로니 샐러드, 마시멜로 소시지 꼬치, 바비큐 등등 많은 음식을 준비했다. 또한 이곳 필리핀에서는 새해에 13가지 과일을 준비하는 게 전통이라고 한다. 이 모든 음식을 1월 1일, 새벽 12시에 딱 먹는 것이다. 앉아서 같이 음식을 준비하는데 우리나라 설날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집도 설날에 가족들이 둘러앉아 같이 제사상을 준비하기 때문이다.





필리핀에서는 특별하게 새해에 불꽃 놀이를 한다. 12시를 전후로 곳곳의 집에서 불꽃이 터지며 엄청난 소리를 자랑하는 폭탄(?)이 펑펑 터진다. 내 남동생도 신이 나서 나팔을 불고 불꽃을 터트리며 방방 뛰면서 HAPPY NEW YEAR을 수도 없이 외쳤다. 언니가 춘권을 튀길 동안 나와 CJ는 춤 삼매경에 빠졌다. 오디오에서 나오는 신나는 음악에 잠시 정신줄을 놓아버린 것이다. 이 순간을 길이길이 기억하고 싶어서 동영상을 찍으며 정말 미친 듯이 춤을 쳤다... (민망해서 아직도 영상을 보지 않았지만 아마도 내 흑역사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다)



12시가 다가오자 정말 많은 불꽃이 밤하늘을 장식했다. 우리 집도 여러 종류의 불꽃을 함께 터트리며 즐기면서 새해를 맞이했다. 엄마는 큰 냄비를 국자로 치면서 HAPPY NEW YEAR을 외치는데, 너무 귀여우셨다... ㅎㅎ 12시가 됨과 동시에 진정한 파티가 시작됐다. 음식파티!!! 하루 종일 준비했던 음식을 가족들과 함께 먹으면서 우리의 새해는 그렇게 저물어갔다. 사실 아직도 2015년이라는 게 실감이 나지는 않는다. 한국의 가족들과 떨어져 타지에서 보내는 새해여서인지 날씨가 여전히 더워서인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내 생애 가장 기억에 남는 새해였다. 모든 게 마냥 즐겁고 신기했고 행복했다. 필리핀, 산타크루즈에서 나의 가족들과 함께였기에!

# 지연이의 이야기

우리 가족! 정말 많아요. 너무 많아서 누구부터 소개해야 할지..



왼쪽부터 아떼 에이미, 아떼 카롤, 깔로, 꾸야 얼넌, 까트리스, 나나이 수싱, 띠띠, 아떼 린린 (아빠는 아침부터 술잔 하시고 주무시고 계신다 ㅠ ㅠ)

**아떼 카롤 (29)** : 엄마 수싱의 넷째 딸로 두 아이를 두고 있다. 내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언니. 우리 집에서 나를 제일 많이 신경 써준다. 어딜 가나 나를 데려가고 챙겨준다. 언니의 그라함 케익은 완전 최고!  
자주 하는 말 : 차리또. Eat more!

**꾸야 얼넌 (29)** : 카롤 언니의 남편이다. 직업은 오토바이 관련..? 오빠는 인상은 약간 험하지만.. 장난도 많고 언제나 아떼와 사이좋은 모습을 보여 준다.  
좋아 하는 것 : 노래 부르기. 노래방 기계를 잡으면 끝이 없다.

**까트리스 (5)** : 카롤 언니의 첫째 딸로 엄청난 장난꾸러기이다. 취미는 노래하기와 연기하기. 그 중에서도 우는 연기를 제일 잘한다. 새침떼기 같지만 나를 언니 언니하며 잘 따른다.  
자주 하는 말 : 아떼 차리또~ Let's eat!  
못생겼어(유일하게 할 수 있는 한국말)

**깔로 (0)** : 태어난 지 세달 된 막내 남동생. 배가 통통한 귀염둥이. 아침 5시가 되면 우렁찬 울음소리로 온 가족을 깨운다. 엄청난 살인미소!

**징키 (18)** : 엄마 수싱의 7남매 중 막내 딸. 19살이지만 운전 마스터. 우리 가족의 운전을 책임진다. 말을 할 기회가 많진 않았지만 항상 웃으며 내게 인사하는 동생. 항상 방에 있거나 밖에 나가 있다.(사진에도 없다..ㅏㅏ)

그리고 일 때문에 주말에만 집에 오는 우리 나나이, 따따이, 꾸야 에드먼은 타운에서 작은 음식점을 하시고 아떼 린린은 다구판에서 오토바이 관련 일을 하고 있다.

**나나이 수싱 (58)** : 우리 엄마. 내가 느낀 우리엄만 조용하면서도 왠지 소녀 같다. 내게 많이 말을 건네시진 않지만 항상 웃는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신다. 마음이 편해지는 엄마 미소..

**따따이 까를로스 (58)** : 우리 아빠.. 담배를 너무 많이 피신다..! 항상 나에게 대화를 거실 때마다 코피를 쏟으신다.. 무뚝뚝하시면서도 나를 정말 많이 챙겨주신다.

**꾸야 에드먼 (27)** : 얘기를 거의 나눠 본 적이 없는 오빠. 그치만 왠지 모르게 편한..?

**아떼 린린 (24)** : 지금은 남자친구가 필요 없다고 하는 우리 언니. 목소리가 정말 매력적이다.



또!! 우리집에 살진 않지만 우리집을 하루에도 수십번 드나드는 가족들이 더 있어요.

우리 옆집에 사는 가족

**아떼 에이미(34)** : 나나이 수싱의 둘째. 내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언니. 내가 다쳤을 때 제일 많이 걱정해준 엄마 같은 언니. 지금 둘째 아기를 가지고 있다.

**꾸야 라리(37)** : 아떼 에이미의 남편. 꾸야 얼넨과 함께 장난기가 정말 많다.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고 계신다.

**라알미(11)** : 아떼 에이미의 딸. 정말 예쁘다. 그런데 폰수 같다. 집에서 티비 보는 걸 제일 좋아한다.

그 외에도 아떼 선샤인, 사이먼, 루진 등.. 7남매가 한 마을에 살고 친척도 많아서 우리집은 항상 복잡작하다. 한국에서 나는 첫째 딸인데 이 곳에는 나를 항상 챙겨주는 언니들이 많아서 너무 좋다. 그리고 우리 집 귀염둥이 동생들도..! 아떼 카롤이 깔로를 나에게 맡기고 일을 보러 나갈 정도면 나도 이제 진짜 이 집 가족이 된 것 같기도.. ㅎㅎ



내 동생 카트리스, 깔로

가끔은 조용했으면 좋겠지만... 사람 사는 냄새 나는 우리 집☺

Happy new year! 새해에



라알미, 루진



카트리스 생일날



# 필리핀의 크리스마스

필리핀에서 크리스마스는 1년 중 가장 큰 축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ber'이 들어가는 달은 크리스마스라고 할 정도로 9월부터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노래가 나오기 시작해. 온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조명으로 가득하고 정말 아름다워. 여기 사람들은 우리가 필리핀에서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보낼 수 있는 게 엄청난 행운이라고 하곤 했지.

24일 밤이 되면 온 가족이 크리스마스 음식을 함께 준비해. 그 중 스파게티와 과일샐러드는 무조건 만드는 필수 음식이야. 그리고 밤 12시가 되면 다 함께 메리크리스마스를 외치며 음식을 먹으며 25일 크리스마스를 맞아.

한국에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커플들을 위한 날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냥 소소하게 가족들끼리 외식을 하는 것이 전부인데 여기 필리핀은 정말 크리스마스가 모두의 큰 축제처럼 다 함께 즐기는 날이라서 참 좋아.

집 앞마당의 식탁에 앉아서 나는 소시지를 자르고 언니는 떡을 빗고 아빠는 코코넛을 갈고 엄마는 스파게티 면을 삶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크리스마스 음식을 준비하는 그 시간 동안 내가 정말 이 가족의 일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 큰 시내에서 시끌벅적하게 크리스마스를 보내지 못한 것은 아쉬웠지만 마음은 더 따뜻하고 행복했던 크리스마스였어! 정말로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이곳에서 보낸 것은 내게 행운이었어.





# '산타크루즈'에서 만난 새로운 가족!

한국의 가정과 다르지만 다른 느낌 대로  
또 다른 삶의 재미가 있다😊

## Rosy. A. Barcel(53)

직업 : 엄마, 가정주부(빨래, 청소 등 집안의 살림꾼!)  
멀리 가는 것, 사람이 많은 것을 싫어하시지만, 이와 다르게 마을의 입담가 - 아침~저녁까지 끊임없는 Talk 친구!  
가족 중 영어를 조금 쓸 줄 아는 유일한 소통자.



## Victoriano P. Barcel(48)

직업 : 아빠, 농부(소, 염소 사육 및 각종 곡식 수확)  
애주가-술이 없는 삶은 상상 불가  
마을의 대표 가수.  
가아~~~끔씩 사용하시는 영어는 '빵빵'터지게 만든다!

## Rovily. A. Barcel(12)

직업 : 딸, 학생  
낯을 많이 가려 처음엔 그녀가 조용한 줄 알았다.  
그러나... 그녀가 기분이 좋을 땐, 어머니를 능가한다!  
우리집의 쥬크박스 - 하루는 그녀의 라이브로 시작된다.  
발랄, 박력, 감척함을 두루 갖춘 미모의 여동생.

## Venus. F. Aquino(13)

직업 : 사촌, 학생  
사촌이기는 하지만 어릴 때 부터 같이 살아 가족이나 다름없다!  
조용히 묵묵히 집안일을 하는 성실한 아이!  
가끔 통역을 해줄 때 그녀의 발음은 수준급!  
참고) 전교 1등 ㄷ ㄷ



# 우리가 겪은 장례 문화

By 경구

영제형이 홈스테이를 하고 있는 집의 친척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참여하게 되었다. 필리핀의 장례 문화는 오늘날 한국의 보편적인 3일장과는 다르게 짧게는 1주일~길게는 2주일 동안 진행된다. 필리핀의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귀국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서 오래 장례식을 하는 이유도 있다. 우리가 참여한 장례식은 총 10일 동안 진행되었다. 시신을 관에 넣은 채로 빈소로 옮겨두고 9일이라는 시간을 보냈다.

시신이 관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하면 언제든지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점이 한국과는 달랐다. 영정 사진은 마지막 날, Barangay 사람들이 공동으로 묻혀있는 묘지에 시신을 옮길 때, 잠시 동안 관 앞에 놓아두고 가족이 회수한다. Barangay의 묘지에 자리가 부족할 경우 타 Barangay의 묘지를 사용하기도 한다. 공동묘지에는 따로 관리자가 있어서 돌아가신 분의 가족들이 따로 관리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죽은 자를 추모하는 날인 11. 1에 묘지를 재방문하며, 그 외에는 개인의 의지에 따라 방문 횟수가 달라진다.

우리가 본 장례식의 마지막 날은, 관을 땅에 묻지 않았는데 전통적인 관례는 관을 땅에 묻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재정이 부족해 가정 형편이 되지 않는 경우, 관을 땅에 묻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외에도 ‘화장’을 하기도 한다. 이 날, 하얀 백장미를 관위에 올려놓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하얀 백장미를 관위에 올려두거나 그 주위에 뿌리는 것이 필리핀의 장례 문화라고 한다.







또한 마지막 날에는, 거대한 행렬이 이어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관을 앞에 세워두고 몇 KM를 함께 걷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그 외에도 편지 봉투에 돈을 넣어 두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한국과 달리 부조금을 내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조문객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필리핀에서 가족의 개념은 먼 친척까지 포함하는데, 누군가가 사망할 경우 따로 상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상주가 된다. 다만, 가까운 친척과 한국 개념의 가족이 주로 빈소를 지키며, 자주 방문한다. 그러나 먼 친척도 경우에 따라서는 자주 방문하기도 한다.

보통 시신을 무덤으로 옮기기 전날에 빈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카드 도박, 빙고 게임 등을 즐기며, 빈소 옆에 노래방 기계를 들여놓고 노래를 하며 노는 것이 인상 깊었다. 여러 사람들이 음주를 즐기며, 기타 반주에 노래하는 모습, 아이들이 빈소에서 뛰어 노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었다. 우리는 관 오른쪽 옆에 큰 종이에 이름이 적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종이에 죽은 사람의 이름과 그의 자식들, 형제자매의 이름이 적혀져 있었다. 부모님이나 남편, 아내의 이름은 적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관 앞에는 비스킷, 커피와 같은 간단한 음식이 놓여져 있었는데, 이는 필리핀의 전통적인 풍습이라고 한다.

한국의 즐기면서도 엄숙한 분위기와는 다르게, 이곳의 장례 문화는 정말 즐긴다는 기분이 들었다. 복장도 격식이 없이 자유로운 복장이었다. 열린 공간에서 실컷 노는 것이 문화의 한 단면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론 슬픔을 삼키는 방편 중 하나인 것 같아 가슴이 먹먹했다. 출국하기 몇 달 전 두 번의 장례식을 동시에 맞은 기억이 떠올라 슬픔이 밀려 오기도 했다. 곤히 잠들어 계신, 고인의 모습을 보았을 때, 돌아가신 외할머니와 친할아버지의 모습이 그 분의 얼굴에 겹쳤다. 한국에서 겪은 장례문화와 우리가 겪은 필리핀의 장례문화가 많이 달라, 비교해 보고 싶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는 Navarsa's House!

## 아공 - 다닐로 (49)

하는 일 - 농사, 벌목, 건축, 바랑가이 이사회, 교회반주  
 좋아하는 것 - 술, 레드홀스, 지네브라, 임페라이트 (모두술임)  
 보유가축 - 소 1, 오리 5, 닭 2  
 하는 일이 많으신 만큼 매우 바쁘시다. 아침 6시에 나가셔서 저녁 먹을 때 즈음인 8시 정도에 들어오신다. 항상 거울을 보시며 머리를 뒤로 넘기시고 교회 갈 때 멋지게 차려입고 기타연주 실력으로 봐서 소싯적 상당했을 듯하다.

## 알지 - 한지 (47)

하는 일 - 무역 (마을과 마을사이)  
 자주하는 것 - 다니카에게 화내기, 나에게 과자주기 사탕주기  
 자주하는 말 - Lorenzo, Gutom ka na? (Are you hungry?)  
 매일 짐을 짊어지고 강을 오가며 장사를 하신다. 피곤하냐고 물어보면 피곤하다고 웃으신다. 괜찮냐고 물어보면 괜찮다고 웃으신다. 배고프냐고 물어보면 배고프다고 웃으신다. 항상 나에게 웃으신다. 하지만 다니카에게...

## 아깡 - 하이디 (25, 추정27)

하는 일 - 집안일, 교회주일학교 교사, 가가호호수다  
 자주하는 것 - 욱하고 멧쩍은 웃음  
 보유가축 - 암암(개)  
 나이를 모르겠다. 분명히 나에게 나이를 속이고 있다. 다이어트를 말로만 하는 먹기 좋아하는 처녀. 자기가 배고프면서 항상 나에게 배고프냐고 물어본다. 아침에 조강을 하기로 했는데 내가 도저히 새벽 5시에 일어나질 못한다. 미안... 나이가 같아서 그런지 내가 가장 편하게 느끼는 가족이다.



## 니깡 - 다니카 (16)

하는 일 - 고등학생, 염소 키우기, 설거지  
 잘하는 것 - 문자, 페이스북, 갑자기 짜증내고 갑자기 풀기, 언니 괴롭히기, 급하게 술 마시고 취하기  
 천적 - 엄마  
 케미 - 베드로(강경구), 아빠  
 보유가축 - 염소 2, Kitty(고양이)  
 요즘 태블릿PC를 너무 갖고 싶어하지만 성적저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 않고 당당히 요구하고 있으나 아빠는 TV만 보시는 중. 가족 중 내가 가장 어려워하는 사람. 어려워 여고생...

## 아릿 - 하리스 (20)

하는 일 - 대학생, YMCA장학생, 소 키우기, 농사, 무거운 것 나르기, 강경구 성대모사  
 보유가축 - 소 6, Doglast(개)  
 캄보디아팀 이권희단원을 닮음. 처음과는 다르게 상당한 풍수다. 화내는 걸 본 적이 없고 또한 다른 사람이 화내도 별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학교를 가는 날에도 아빠의 농사일을 묵묵히 돕는다. 이럴 땐 멋져.



- 
- ① 천방지축 암암과 순둥이 도글라스트
  - ② 타운에서 하리스를 기다리며 ☺
  - ③ 집안 행사 때마다 한 마리씩 사라진다는...
  - ④ 냉장고 위 무언가?
  - ⑤ 키티였구나!
  - ⑥ 피크닉가서 브이V
  - ⑦ 내가 소싯적에 말이야~
  - ⑧ 난 이제 소녀가 아니에요~ 어린애예요~
  - ⑨ 나무 좀 베러 가볼까나
  - ⑩ 도촬! 핸드폰 이리 내놔!
  - ⑪ 음~ 내가 이 집의 기둥이지
  - ⑫ 선녀가 강가에서 발만 씻고 가지요 ~ ♪



# 여기서 잠깐!

## 이것은 무엇일까요?

---

- 지연이네는 이것을 빌려서 잠자는 6시간을 제외하고 풀가동 시켰다.
- 경구는 새벽 3시부터 시작된 이것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 구인이는 어디서나 잘하나 못하나 이것을 이용하는 필리핀 사람들의 자신감을 부러워한다.
- 영제는 장례식장에도 등장한 이것에 혀를 내두르고 필리핀 사람들의 열정을 인정했다.

# Videoke – 세상의 중심에서 노래를 부른다.

필리핀 사람들은 남녀노소 노래부르는 것을 좋아한다. 아니 사랑한다. 그래서 인지 어디를 가든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비디오케'이다. 홈스테이를 시작하고 참여한 행사에서 교회행사만 제외하고 모든 곳에서 비디오케를 볼 수 있었다. 생일잔치에서도 크리스마스파티에서도 결혼식에서도 심지어 장례식장에서도 등장했다.

홈스테이를 들어오기 전 다구판에서 지낼 때도 어느 식당에나 있는 비디오케를 보고 신기해했었다. 밥을 먹는 도중에 갑자기 노래가 부르고 싶어지면 번호를 누르고 노래를 부른다. 어느 날에는 집 근처 식당에서 들려오는 노래 소리에 잠을 설친 적도 있었다. 아주 크고 못 불렀기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여기서도 어디서든 잘 부르든 못 부르든 자신있게 노래를 부르는 것 같다. 모르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도 그냥 즐긴다. 구인이는 열린장소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래를 부르는 필리핀 사람들의 자신감이 좋아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피해사례도 있다. 얼마 전 경구네 옆집에 결혼식이 있었는데 역시나 비디오케가 있었다. 그 집이 얼마나 노래를 좋아하던지 조금 떨어진 우리 집에도 밤늦게까지 작게나마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창문이 그 집 쪽으로 나있던 경구는 새벽3시부터 시작된 누군가의 노랫소리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하루 종일 비몽사몽이었다. 그런데 그 범인이 경구네 아빠였다는...

내가 비디오케에 대한 필리핀사람들의 열정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던 장소가 있다. 바로 장례식장. 무거운 마음으로 증조할머니의 장례식장에 들어섰는데 비디오케가 보였다. 순간 피식하고 웃음이 나왔다. 신나게 춤을 추고 떠들썩한 노래는 부르지 않았지만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노래에 '아 필리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어디를 가나 노래를 부를 줄 알았으면 한국에서 팝송을 많이 준비해 올 걸 그랬다. (참고로 필리핀은 영어문화권이기 때문에 팝송을 엄청나게 부른다.) 어딜 가나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비디오케를 눈앞에서 듣기만 하고 있으니 아쉬울 때가 많다. 혹시나 필리핀에 올 예정인 사람들(특히 필리핀 13기), 노래연습 많이 하고 오세요~,~





가한에세이

I ❤️  
PANGASINAN





# 정구인 Mutya

일을 하다가도, 밖에서 팀원들과 놀다가도, 다른 집에서 간식을 먹다가도, 언제 집에 갈지 생각을 한다. 우리 집에 가고 싶다. 엄마가 점심에 뭘 해줄지 모르지만 그냥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싶다. 2시가 되면 학교 끝나고 집에 왔을 CJ가 생각이 난다. 문득 옆집에 시언니가 뭘 하고 있을지 궁금하다. 지금 언니, 조카, 이모, 오빠는 타운에 갔고 엄마 아빠는 교회에 가셨다. 집 마당에 나와 혼자 에세이를 쓰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평화롭다.

내게 걸을 힘만 있다면 맨몸으로 아침에 나와서 배고픔을 한 번 느낄 틈 없이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올 수 있다. 그냥 반가워서 인사를 드리면 자기 집에 들어와서 간식을 먹고 가라고 하신다. 내가 인사드릴 때가 마침 식사 때라면, 같이 밥을 먹고 가라고 하신다. 조금만 하늘이 어두워지면 자고 가라고 하신다. 이런 따뜻하고 평화로운 마을에 살 수 있게 된 것은 참 행운이다.

하루는 아침을 먹는데, 엄마가 “Don't be shy, If you want to eat bread or meryenda, you eat! We are family.” 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냥...그냥...그 때의 기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항상 맛있는 건 나부터 주시는 엄마. “Never mind”를 외치시면서 힘든 일을 극구 말리시는 아빠. 끊임없는 간식을 제공해주는 언니. 설거지 중 잠시 물이 멈췄을 때 앉아서 쉬라고 손수 의자를 가져다 주는 내 조카. 집 옆 오두막에서 가족들이 하하호호 웃으면서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떠오른다. 저 행복한 웃음소리가 나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다. 물론 진짜 가족이 아니기에 불편한 점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지. 그렇지만 진짜 가족끼리도 서로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투닥거리기도 하잖아?

# 정구인 Mutya

나의 2014년 마지막 12월을 돌아본다면,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다. 그리고 사랑을 받았다. Give & take가 아닌 이유 없이, 대가 없이 주는 타인의 사랑과 관심이 나를 유하게 만들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 다리가 아파서 힘들어하는 엄마를 보면서 한국에서 어떤 약을 보내면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고 한국에서 일하는 언니의 남편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매일 저녁을 먹은 후 설거지를 자초했고 동생이 먹고 싶다고 하는 건 다 사주고 싶고....더 잘하고 싶다. 이곳의 사람들, 우리 가족들 덕분에 내 안의 못됐던, 부족했던 부분들이 변하고 채워지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나는 정말 복이 많은 아이다.

감사한 것 10가지를 적어  
보고 싶었다. 호호호  
2015년을 새롭게 시작하러!



1. 내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것.
2. 우리 집에 물이 나온다는 것, 큰 변기가 있다는 것, 휴지가 있다는 것. (내가 얼마나 행운인지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모를거다... 영제오빠 에세이를 보면 알게 되겠지.)
3. 밤마다 예쁜 별을 볼 수 있다는 것. (우리 집 위치가 높아서 그런지 별이 되게 가깝게 보인다!)
4. 라온아띠로 이 곳에 올 수 있었다는 것. (라온아띠 13기 축하드려용~특히 필리핀팀, 보고싶네요...\*.\*)
5. 라온아띠 멤버들을 만났다는 것..(호호)
6. 바기오에 다녀온 것. (떡볶이를 먹었을 때의 감동이란.)
7. 필리핀 음식이 입에 참 잘 맞는다는 것. (나만 한국 음식을 그리워하지 않고 있다.)
8. 다시 필리핀에 온다면 나를 반겨줄 사람들이 꽤나 생겼다는 것.^\_^
9. 나의 몰랐던 모습을 찾게 된 것. (난 도시체질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시골 풍경을 보는 게 너무 좋다. 오토바이는 반항아들이 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토바이...타는 게 너무 좋다. 물론 운전하는 게 아니라 뒷자석에서 호.호 그리고 나름 아침형 인간이었다. 내가 이렇게 일찍 잘 일어나는 애였다니. 초등학교 때 켈 싫어했던 숙제가 일기 쓰기였는데...필리핀에 오기 전날부터 지금까지 매일 일기를 쓰고 있다. 지금 벌써 3번째 일기장을 쓰고 있다는 허허... )
10.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것. 그것도 건강하게. 더 감사한 건 우리 부모님 딸이라서, 구윤이 누나라서.



싱가폴 워크캠프 완전 좋았다...!! 마지막에 우리 팀 친구들이 나한테 귀걸이를 선물해줬다..정말 감동!!!!



내 베프들 <



잔디모자!! 새종군



피톤..보고싶다 π . π 그대는 너무 따뜻한 사람.



꽃보다 우리들 ㅋ . ㅋ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덤프사이트와 푸가로, 언젠가 다시 그곳에 방문하는 날이 오길 바라본다.



칙칙폭폭~덤프사이트로 향하는 길



보누안 비치는 늘 예쁘구나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길!



Merry Christm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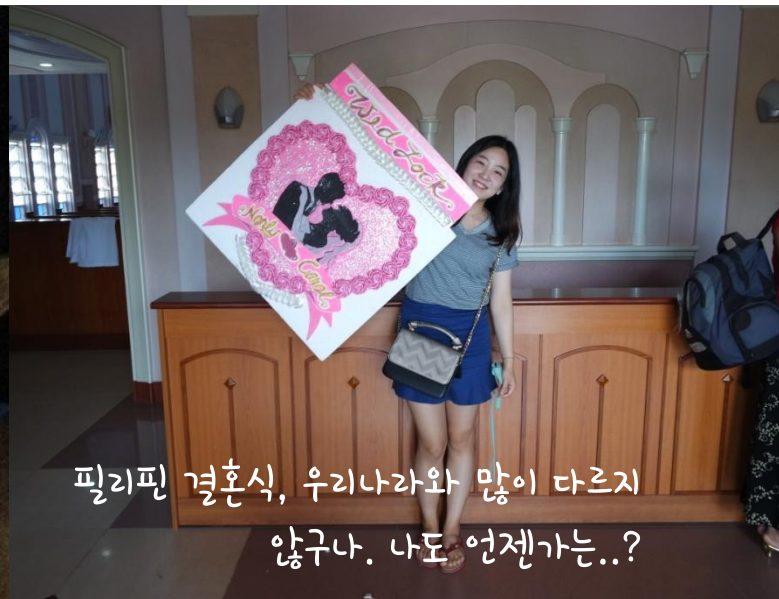
홈스테이는 정말 사랑이다. 지금 내 방 침대에서 사진 고르는데, 여기가 한국 내 방인가 싶다..너무 편해.



칼로...애 때문에 요즘 미치겠다.  
너무 귀여워 ㅠ ㅠ 한국에 데려  
가고 싶다...



개구쟁이 내 조카~~~♡



필리핀 결혼식,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지  
않구나. 나도 언젠가는..?



초록 옷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애기는 네가 처음이야.



제목 : 키 순서



발레리나가 되겠어요.  
이 날 노을이 참 예뻐서!



# 백지연

-나는 지금 내가 살던 대구판에서는 시간 가까이 떨어진 한적한 시골에서 살고 있다. 이곳이 얼마나 시골이냐고 하면.. 내 방 바로 창문 앞에는 엄청나게 큰 소가 저벅저벅 걸어 다닌다. 집에는 가끔씩 닭들이 들어와서 집에 음식을 쪼아먹고 나간다. 길을 걸어가다 보면 논과 밭이 넓은 지평선으로 펼쳐지고 우리를 숨막히게 하던 빌딩은 단 하나도 찾아 볼 수 없다.

-한국에서는 새벽 2시까지 스마트폰을 하고 아침 아홉시면 느즈막히 일어나는 게 내 하루였는데 지금은 9시면 침대에 누고 아침 6시면 일어난다. 사실 우리집의 깔로(3달. 막내 동생)의 우는 소리로 강제 기상이지만 해가 뜨면 함께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이 드는 이 일상이 난 너무 좋다.

-지금 시간도 아침 7시 30분. 하루가 엄청나게 길게 느껴진다. 아침에 샤워를 하고 빨래를 하고 밥을 먹고 우리 집 깔로를 안아주고 놀아주고 나서도 아침 11시. 한국에서 내가 일어나는 시간이다.

-우리 집이 다른 집들 보다 더 멀어서 약속장소에 가려면 보통 20분을 더 걸어야 한다. 한국이었으면 무조건 버스 타고 다니는 거리인데.. 여기서도 이제 익숙하다. 아니 너무 좋다! 길을 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지나가는 동안 이 집 저 집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는 그 길이 좋다. 가끔씩 내 이름을 먼저 부르며 인사해주는 마을 사람들을 만날 때면 그 날 하루가 즐겁다.

-12월은 나에게 어떻게 보면 큰 전환점이 된 달이었다. 우리 팀원들이 나를 많이 생각하고 믿어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곳 산타크루즈에서는 타국에서 온 나에게 많은 사랑을 주신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과분한 사랑을 받는 것 같다. 내가 돌아가기 전에 무엇인가 보답하고 싶은데..

-내가 정말 애착을 가졌던 덤프사이트 활동. 12월에 나름대로 마무리를 잘 하고 왔지만 아직도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많다. 운이 좋게 안양 워크캠프 기간에 덤프사이트를 다시 한번 방문할 수 있게 됐다. 빨리 보고 싶다.

-요즘 따라 한국 음식 생각이 많이 난다.. 근데 살은 왜 계속 쪼는 거지?







# 강경구 '인연'

달빛에 몸을 씻고 밤하늘을 수놓은 별을 보며 추억의 책장을 넘긴다. 한 장... 두 장... 추억의 책장을 넘길 때 마다, 수많은 얼굴들이 책장을 가득 메운다. 하나... 둘... '시간'이란 연필로 그들의 이름을 마음에 새긴다. 이번 달은 유독 연필의 심이 많이 닳았다.

반복되는 활동과 사람들에 지쳐 갈 때 변화가 찾아왔다. 12월 초, 아직까지 '나'에 대한 상념에 젖어있던 내게 '안다'에서 만난 한 학생이 편지를 건네주었다. 그 편지는 얼어있는 나의 마음을 녹여주었다. 고작 3일 밖에 만나지 않았지만 이 친구의 글귀, 한 구절, 구절 읽을 때 마다 오랜 친구 같은 느낌을 받았다. '사람은 오래 만나봐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오랜 고정 관념에 금이 갔다. 사람의 진심을 알아가는 데는 시간을 뛰어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친구에게 필리핀에 와서 처음으로 talkative라는 말을 들었다. 한국에서 익숙하게 들어오던 단어가 이곳

에선 낯설게 다가왔다. 언제부턴가 습관처럼 조용히 있던 내게 이 단어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생각해보면, 외로워서 입을 닫아 버린 것 같기도 하다.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아이들을 제외하고 먼저 다가온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아니면 먼저 다가온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지쳐버린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날따라, 대화가 그리웠다. 그때 그 친구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이날 처음으로 영어로 대화하는 것이 정말 즐거웠고 시간가는 줄 몰랐다. 친구의 편지 중에 '절대 변하지 마라, 지금이 모습 그대로 좋다'라는 문장이 많이 부정적으로 변해버려 아파하던 내게 큰 힘이 되었다. 한국에 돌아가서 연락할 친구가 있을까? 라는 의문에 확실하게 답을 준 친구다. 지금 까지도 꾸준히 연락하며, 서로에게 배워가고 있다. 이 친구를 만난 직후 관계 문제로 모든 것에 회의감이 들고 무기력할 때 도움이 된 고마운 친구이기도 하다. 국적, 언어가 달라도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친구가 생겨 행복하다.

"고맙다" 이 사실을 일깨워준 친구들이 몇 명 더 있다. 싱가포르 워크캠프에서 만난 싱가포르 친구들이다. 조용하고 말없이 있는 내게 손 내밀며 작은 말 몇 마디에 웃어주며, 나의 장점들을 이야기 해 주었다. 11월 초에 맺은 수많은 인연들이 행복함을 주었다. 낯선 이국 땅 에서 보낸 시간들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행복했던 기억을 뒤로 한 채, '다구판'에 온 나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2명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고 화를 냈다. 이로 인해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모두 싫어졌고 다 질려버렸다. 그냥 다 두고 한국으로 가고 싶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이 그리웠다. 필리핀 사람들을 대하는 것 보다 때론 더 모질게, 때론 이기적으로 제멋대로 굴어도 친구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란 이름으로, 그들은 항상 이해해주었다. 그러나 이곳에서 내가 잘해보려고 해도 뜻대로 풀리지 않고 일이 꼬여만 갔다. 필리핀의 문화라고 생각하고 다 이해하려고 했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고, 마음이 아팠다.





마음의 병이 커질 때, 곁에 남은 건 라온아띠 팀원들이었다.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고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해준 지연이, 구인이, 영제 형 모두 고맙다. 항상 팀원들을 잘 만났다고 생각하고 있던 나의 믿음을 더 강하게 키워주었다. 많이 부족한 모습에 답답하기도 할 텐데, 그런 모습들까지도 다 이해준다. 이 때, 순간의 감정 때문에 팀원 중 한명에서 상처를 주었다. 아무 생각 없이 감정적으로 뱉은 말에 상처 입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이야기 해주어서 고맙다. "조심할게!! 다시 한 번 미안해~"

감정이 적당히 사그라들고 완전히 치유되지 않을 때 산타크루즈란 곳을 홈스테이를 들어갔다 가족이 생기고 가족 같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하루하루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 일까, 이곳에서 나는 '재밌다'는 소리와 '수다스러워서 좋다'는 소리를 종종 듣는다. 영어만 잘했어도 더 즐겁게 해 줄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 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가족과 함께 있다 보면, 몇몇 모습들에서 한국의 진짜 가족이 그리워진다. 엄마였다면... 아빠

였다면... 동생이었다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조건 없는 사랑' 아름답고 송고한 단어이자, 어려운 단어다. 이 단어를 해내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이 자랑스럽다. 나 또한 그런 사람이고 싶다.

이곳에서 여동생들과 함께 있을 때, 종종 한국의 남동생이 생각난다. '수능은 잘 쳤을려나, 아프지는 않을까' 형으로써 많이 못 챙겨준 것 같아 미안하다. "한국에 있는 우리 가족 파이팅! 다들 보고 싶어~ 새해 복 많이 받아! 사랑해♥"

한국의 가족들이 그리기도 하지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행복하다. 하늘에 반짝이 수많은 별들 중 가장 빛나는 별들 중 하나가 지금 이 순간 이길... 행복하고 상처입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준 특별한 달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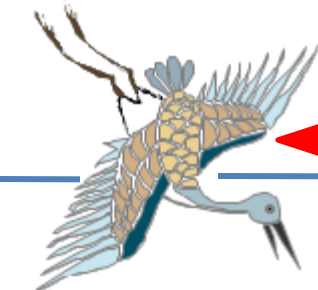


# ENZO의 생각들

집에 돌아가고 싶다. 엄마가 보고싶다. 왜 엄마는 한국에 있어서 나를 보고싶게 만드는 걸까.

밤하늘 별은 정말 최고다. 이쁘다☺

점점 손으로 똥을 닦는 게 익숙하다. 난 이제 휴지로부터 자유로워 졌다. 야호.



새해다. 1월이라니. 나 27살이다. 한국 돌아가면 취직을 해야하는데 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돌아가자마자 토스 점수 따야 되는데. 토익 점수도 조금 더 올려야 하는데. 이런 것 없어도 날 데려갈 데 없나.

홈스테이와서 많이 게을러졌다. 잠을 하루에 10시간은 자는 것 같네. 게으름은 이제 그만! 부지런해지자.



소주, 회, 육회, 돼지국밥, 김치겉절이, 삼겹살, OB라거, 막걸리, 부침개, 김치찌개, 소라, 멧게, 해삼, 짬뽕, 오뎅, 떡볶이, 갖가지 튀김,

하리스 증조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이제 하리스의 할머니의 부모님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고아다. 할머니도 엄마가 많이 그리우시겠지. 나도 언젠가는 고아가 되겠지. 누군가를 그리워하겠지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이 세상에서 사라지겠지. 그럼 누군가는 나를 그리워해줄까.

12월이 어떻게 지나간 지 모르겠다. 에세이를 쓰고 있는 지금(1월 6일)도 12월 같다. 시간이 빠르다.

사랑 하고싶다



너는  
오 주님이

사랑을 하

타



이번 달도 다음 달도 ♡